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국가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영국사례 고찰

☐ 과제명

-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수립 연구

☐ 출장기간

- 2019.10.20.(일)~2019.10.27.(일)

☐ 출장국가(도시)

- 영국 런던과 영국 리드

☐ 출장자

- 전진아 연구위원 (관계부처인 국립정신건강센터 교육과 이상훈 과장)

☐ 일정요약

일자	국가(도시)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활동상황
2019.10.20.	런던			런던 도착
2019.10.21	런던	King' s College London	Tessa Roberts	정신건강 분야 WHO Initiative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King' s College London의 담당자 면담
2019.10.22.	런던	보건부와 NHS	Kan Fatema 외 보건부 4인, Tim Kendall(NHS)	보건부 방문을 통한 정부 단위의 정신건강 정책 및 NHS 정신건강 담당자인 Tim Kendall 면담을 통한 정신건강정책과제에 대한 시사점 도출
2019.10.23.	런던	Health Education	Polly Ashmore 외 6인	정신건강 인력 양성 및 교육관련 체계 논의

		England		
2019.10.24.	런던	East London NHS Foundation trust	Melanie King 외 3인	동부 런던의 지역단위 위기개입 서비스 및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팀 면담
2019.10.25.	리드	Peer-run Crisis Service in Leeds	Theresa Clarke 외 다수	당사자 주도 위기 쉼터 방문 및 실무자 및 당사자 집단면담
2019.10.26	한국			런던출발
2019.10.27.	한국			한국도착

2 출장 주요내용

①	King' s College London에서의 WHO Mental Health Initiative 담당자 면담
일 시	2019.10.21. 10:00~12:00
장 소	King' s College London
참석자	Tessa Roberts, 이상훈 과장, 전진아 연구위원
WHO special initiative for mental health(2019~2023)의 내용 공유. 보편적 의료보장의 관점에서 정신건강 영역을 바라보는 연구 활동으로 정신건강에서의 epidemiology를 연구하는 글로벌 연구 모임이 운영중임.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중저소득 국가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준)실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함. 연구에서 초점을 두는 것은 서비스 접근성과 서비스 질 개선임.	
②	영국 보건부 담당자 면담
일 시	2019.10.22. 10:00~12:00
장 소	영국 보건부
참석자	Andrew Herd, Caroline Allnutt, Antonia Williams, Kathy Smethurst, Fatema Kan, 이상훈 과장, 전진아 연구위원.
- DHSC와 NHS의 역할 분담: 보건부는 법제도 개선, 시스템 디자인, 주요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고 NHS는 수립된 정책을 이행하는 조직이며, 전반적인 정책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진행함. - 보건부에서 초점을 두는 영역은 서비스의 비용과 질임. 대기기간 단축을 통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한 이슈임. - 정신건강과 관련한 소셜 케어 서비스는 지역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인력들은 주로 소셜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원은 지방정부에서 제공됨. 정신건강과 관련한 비용은(위기개입, 사례관리 등) NHS에서 지원되며, NHS 체계 내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체계라고 할 때 영국은 NHS에 의한 시스템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mental health act'를 사용할 때(비자의 입원) 주로 개입한다고 함. 사회복지사들은 소셜 케어 서비스(personalised care packages)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복지사 중 NHS의 지역 기반 조직인 community mental health teams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들의 경우, 인당 담당하는 사례수가 15~33 개 정도이나, 35~50 사례를 담당하는 경우도 많이 보인다고 함. - 영국은 최근 정신건강 정책의 주요 대상을 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있음 정신건강 예방과 조기개입의 차원에서 아동에게 초점을 두고 있으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고자 함. 아동청소년의 식이장애, 조기 정신증에 대한 개입, 학교 기반 정신건강지원팀 구축(학교 방문을 통한 인지행동치료 등 제공), 의료기관 입원 아동(주로 자폐아동) 대상 서비스 질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Green paper(Transforming children and young people's mental health provision)이 구성되었음. - 성인을 대상으로 유병률이 높은 정신건강 문제에 초점을 둔 IAPT가 NHS 체계 하에서 제공되고 있음. NICE 지침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Care Quality Commission이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역시 마련되어 있음. 지역사회 기반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체계 강화가 다음 국가 계획에 포함 될 예정이며, 2023년까지 1 billion pound 마련할 예정임 . - 최근 비자의 입원 제도 개선과 관련한 independent review(Mental Health Act Review)가 진행되었으며, 이 검토 결과가 다음 법제도 개선에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함	

- 중독의 경우 drinking이 smoking 과 physical activity와 같이 건강증진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 중독은 2014년부터 public Health England 소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예산 구조를 보면 전체 NHS 예산의 11~12%가 정신보건 예산으로 이루어짐.	
③	영국 NHS 정신건강 담당자 Tim Kendall 면담
일 시	2019.10.22. 16:00~18:00
장 소	영국 NHS
참석자	Tim Kendall, 이상훈 과장, 전진아 연구위원
- 한국의 정신건강 체계에 대한 공유 및 한국의 정신건강 거버넌스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함. 정신건강정책을 결정하고, 구성하는 리더가 누구인지, 리더가 정신건강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함.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리더의 의지가 없으면 실행되기는 매우 제한적인 것인 정책이라고 언급함. - 장기입원체계가 아닌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로 변화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가 치료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 개편이 필요함. -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많은 유병을 보이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접근 역시 중요함. 최근 영국은 영유아, 아동, 대학생 및 청년, 조기 정신증을 보이는 인구 집단으로 정책의 초점이 옮겨가고 있음. 다수가 많이 경험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을 통한 인구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많음. - 모든 급성기 의료기관에 liason mental health team을 2027년까지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공유하기도 함. - IAPT는 GP 체계와 같이 일차의료의 체계 내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치의가 IAPT로 전산망을 통해 연계하기도 함. - 중증정신질환 대응 체계와 관련하여 주치의가 의뢰하는 경우 2주 이내 NHS community mental health team이 대응하고, 초기 사정 후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거나(1개월 입원), 조기개입팀(현재는 7일 이내 개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3일 이내로 기간을 축소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으로 연계. - 영국은 전국적으로 'mental health is treatable'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밝혀 있으며, 대중매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음. - user와 carer를 모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시키도록 하였으며, 지침과 정책 수립과정에 중앙과 지방 단위에 모두 참여하였음. - 현재 NHS 예산의 11~12%가 정신보건에 활용되고 있으며, 향후 12~14%까지 단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기도 함.	
④	영국 Health Education England 정신건강 인력 양성 및 교육팀 면담
일 시	2019.10.23. 13:00~17:00
장 소	영국 HEE
참석자	Polly Ashmore 외 6인, 이상훈 과장, 전진아 연구위원
- 서비스의 질 개선 및 patient safety 증진 차원에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 대상 교육의 중요성 공유 - IAPT 서비스는 임상심리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준의 교육 수료를 이수한 후 누구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IAPT에도 기초 및 심화 레벨 등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계에 따라 기초 교육을 이수한 인력부터 임상심리 인력까지 다양한 인력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기초의 경우 well-being practitioners에서부터 high-intensive therapists-> clinical psychologist로 이어짐. - 현재 영국의 정신건강 정책의 전반적인 기조에 따라 아동 전문 정신건강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양성된 인력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만, 학교를 중심으로 제공하도록 되어있음. 물론 이들 인력이 추가적인 보수 교육을 받는 다고 할 경우, 다른 세팅에서 다른 대상에게 서비스	

	제공 가능함. - 신생아 및 영유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의 경우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정신질환에 대한 개입이라기보다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문가에게 교육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Mental health prevention and promotion을 위한 'every mind matters'rk 이루어지고 있음. - 작업치료사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거의 동일함. Quality of life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들의 역할임. - 영국의 경우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인력의 고령화로 인해 향후 단기간 동안 인력의 은퇴 'big leavers'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 신규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영국에서도 주요한 인력 관련 정책 과제임. - 훈련 프로그램에 인력의 self-management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음. de-briefing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Competency framework이 직역마다 구성되어있음. - 서비스 제공은 기본적으로 multidisciplinary team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약사가 medicine management를 위해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있음. 최근 들어 whole-team training이 많아지고 있으며, clinical simulation team을 활용하는 경우도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영국의 경우 각 직역에서 '필수' 교육을 정하는 구조로 인력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⑤	동부런던 NHS Foundation Trust 방문 및 실무자 면담
일 시	2019.10.24. 13:00~18:00
장 소	동부런던 NHS Foundation Trust
참석자	Mellanie King 외 3인, 이상훈 과장, 전진아 연구위원
	- 위기 개입은 24/7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extended crisis service(심층 사정)를 visiting을 통해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확대되고 있기는 함. 이러한 서비스는 qualified registered 인력으로 제공되며 간호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이 포괄됨. 위기 핫라인 역시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의 경우 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과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그 외에도 crisis cafe가 있음. - London Ambulance service가 경찰을 교육, 훈련하는 역할을 하며 지역 센터에서도 경찰 대상 교육을 진행하기도 함. 경찰 내 liason officer가 있어서 지역 센터들과 네트워킹하고 있음. - 직역에 따라 인건비 테이블이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 인력이 하는 역할과 기준에 따라 인건비가 정해지는 구조임 - 의료기관 내 inpatient team이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입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부터 환자에 대한 사례 계획이 수립되고 있음. admission->assessment->treatment-> discharge-> community (12개월마다 care coordinator에 의한 review가 이루어짐) - 지역의 community mental health team의 경우 2차 개입 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주치의와 IAPT는 일차 의료의 성격을 가지며,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개입을 하는 community recovery team의 경우 2차 개입의 성격을 가지며, 이들이 집중 사례관리를 한 이후 다시금 주치의와 IAPT에게 사례가 연계되어 유지관리되는 구조를 가짐. - 18-30세 환자의 경우 주로 조기개입 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이상의 연령대는 community mental health team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고용의 경우 employment specialist가 존재하고 있으며,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취업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경우 support worker가 취업장에 방문하여 지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employment specialist의 경우 voluntary charity에서 제공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들로 구성되어있음. - 일주일에 의뢰되는 사례수는 약 50~60케이스 정도임. - 중증정신질환자 대상 supported accommodation, halfway house같은 경우는 소셜 케어를 통해 지원을 받고 있음.
⑥	영국 리드의 Peer-run Crisis Service in Leeds 방문 및 당사자 면담

일 시	2019.10.25. 9:00~18:00
장 소	영국 리드의 Peer-run Crisis Service in Leeds(Dial House)
참석자	Theresa Clarke 외 다수, 이상훈 과장, 전진아 연구위원
당사자 주도의 위기쉼터(Day care)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조 모임을 지원하는 Dial House는 NHS로부터 펀딩을 받고 있음. 위기 쉼터에는 숙박 기능이 없으며, 그날 위기 쉼터를 이용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들(평균 매일 20명) 중 위기 쉼터에서 당사자들과 면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당사자들이 실무자(5인)로 구성되어있으며, 실무자들이 지원한 사례들 중 위험도에 따라 매일 일정 인원(10명)을 선정함) 위기 쉼터를 제공하며, 새벽 1:30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위기쉼터를 방문한 사람들은 대면 상담을 받으며, 자조집단을 통한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음.	